



- 한글학교 개강
- AMPM 기도회
- 코람데오 / EM 소식
- 간증 / 기고



제3회 성경암송 주안예세마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기뻐하고 있다. <양영 기자>

■ 주안예세마장학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59명 장학생 선발

지난 9월 9일 저녁 7시 30분 벨리채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주안예세마장학회 성경암송 장학금 수여 감사예배가 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주안예교회 유년부부터 대학부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성경암송 대장정을 시작해 10개월만에 총 59명의 학생들이 각자 암송 실적과 학년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12학년과 대학생들은 말씀 암송과 함께 신앙고백 에세이도 제출했다.

시편 1편을 비롯해 친구약 성경에서 10장(편)을 선정해 각자 연습한 후 매달 장학위원들 앞에서 평가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되

었는데 17명이 10장 전체를 암송했다. 이들 중 12명 보너스 장학금이 걸린 로마서 8장 전체까지 암송해 심사 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학생들의 열심과 학부모들의 기도가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였다.

이미 새학기가 시작 돼 대학으로 간 학생들까지 줄을 통해 연결한 이날 예배는 학생들과 학부모, 장학위원들이 장학금 보다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이들의 걸어가는 길을 등불 처럼 비춰줄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보람이 더욱 컸다.
<3면에 계속> | 조용대 기자 |

■ 한글학교 가을학기 개강

2세들에게 한국어 · 모국문화의 자긍심을 심는다

2021년 주안에한글학교 가을학기가 지난 9월 12일 벨리채플에서 개강됐다.

첫날 33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급을 배정받은 후, 교사들의 지도아래 태극기를 그리며 한글학교 교훈인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한글 사랑'을 되새겼다. 학부모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사들을 소개받고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021년 가을학기부터는 기존에 목장모임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의미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정식 학교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며 다음세대의 신앙계승, 자녀들의 언어 교육을 함께 가르치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열의를 다하고 있다.



9월 16일 2022년(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분~4시(2시간 반: 예배변동시 시간 조정), 신년 휴강을 제외한 총 16주)
 •대상: 5세 부터 성인까지 (외부 학생 등록 가능함)
 •일시 및 장소: 벨리 2부예배 후 1시 30

2021 가을학기 안내 • 수업기간: 9월 12일-1



코로나 속에서 맞는 2번째 ‘땡스기빙’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나누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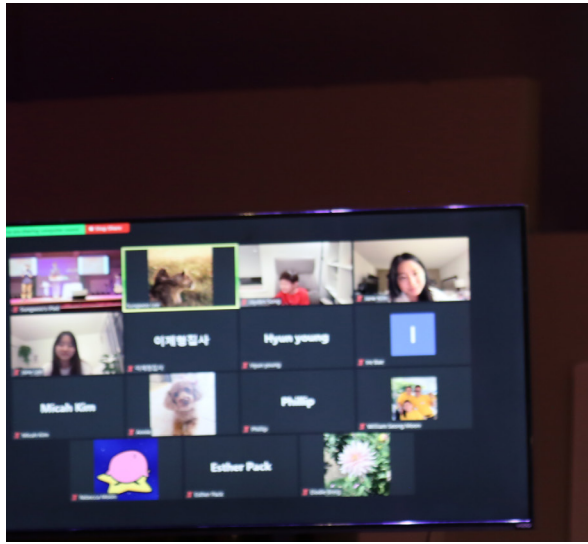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시기에 맞이하는 감사의 계절에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감사와 은총으로 여겨졌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편지형식의 글을 모집합니다.

목회부와 문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최혁 담임 목사도 직접 여러분의 글을 읽고 우수작을 선정하는데 참여키로 했습니다.

특별히 공모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으로도만 물어두기에는 아까운 감사의 사연들을 이번 기회에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께는 위로를 드리기도 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문의: 문서국 오희경 (213) 820-2298 / icccnews123@gmail.com

■ 주안에세마장학금 수여식



신명기의 'Shema' 를 암송하는 리더아 조(왼쪽) 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콜린 이 군.

8개월간 '고난의 암송' 장학금 받고 활짝



한국식... 미국식... 처음보는 식...? 장학증서를 받고 인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다채롭다.

〈1면서 계속〉 이날 예배는 이성우 전도사의 찬양에 이어 리더아 조(4학년) 양이 세마의 중심 말씀인 신명기 6장 4-7절을 암송한 후 김경배 장학위원의 감사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콜린 이(7학년) 군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유창하게 암송, 박수를 받았으며, 로라 박 집사(EM 디렉터)가 영상으로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최혁 담임목사와 오찬국 장학위원이 장학생 한사람 한사람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후 최혁 목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꾸는 씨앗을 지금 심을 수는 있다. 좋은 인생의 미래를 거두기 위해 오늘 좋은 것을 심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자' 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주안에장학회는 금년 제3기 장학회에 35명의 위원들이 기부해 주신 총 4만 5,200달러의 기금과 이월금으로 59명의 세마장학생들과 신학대학에 재학중인 사역자들에게 4만5,650달러를 지급했다고 결산을 통해 밝히고, 내년도 제4회 주안에세마장학회에도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평신도사역훈련원 인도자 간증

‘섬김의 수혜자는 나’

미국에 정착한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교회와 고국 산천을 뒤에 두고 미국에 정착하며 가장 힘든 부분이 말씀의 고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갈급한 마음을 QT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하며 지내던중 최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동안 폐마른 나의 영혼을 말씀의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셔서 감사와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신도사역훈련원의 인도자 교육을 받고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한지 어느새 8년의 세월이 흘러 그동안 19번의 훈련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많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만이 남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인도자라는 직함을 주시고 주안애살을 통해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엔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함께 했던 그룹을 통해 나눔이 이루어지며 끝나야할 시간을 훌쩍 넘겼던 경험들 각자의 중보기도로 응답된 것을 나누며 강력히 역사하심에 감격하던 순간들 한 단원 한 단원 기도로 준



비하며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소감문을 통해 주셨던 감동, 기록한 독서를 통해 때마다 주시는 은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 피값으로 주신 형제요 자매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요. 인도자로 섬기며 가장 큰 수혜자는 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안애살이 시작될 때는 더 빨리 움직이며 실족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 가정의 우환, 남편 장로의 심장 수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초대장이었음을 체험했습니다.

주안애살 훈련은 가장 기초를 잡아주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정한 것처럼 주안애살의 훈련을 통해 말씀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훈련이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 김규실 권사 |

■ 포토뉴스/ 코람데오

‘소통과 교제의 장, 은혜의 한가족’

우리가 여행을 가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번 청년부 아우팅은 각자의 시선을 바라보며 청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잔디밭에 모여 간단히 음식을 먹으며 서로간의 소통을 하는 동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 벨리채플과 비피채플이 만나 수건돌리기, 자기소개하기 등의 게임을 하면서 두 채플이 화합되는 즐거운 장이 되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이지만 서로 반갑게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한번 코람데오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안애교회 안에서 하나되는 축복된 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정인남 성도 |



■ 교육부 교사의 간증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

주일에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IC Kidz에 윤애니 집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어떤 은혜로 그렇게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궁금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불교 집안에서 자란 애니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신 교사의 제안이 많이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으로 시작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공부하고 배우는 복을 주셨음을 듣게 됩니다. | 류명수 기자 정리 |



저는 대학생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몇개월 후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던 EM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련회 기도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를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처음엔 얼떨결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주일날이되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지식도 전혀없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자격미달인 저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내내 늘 교재를 들고다니며 학생 때 시험공부를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

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는 작은 일도 혼자하기 어려운 아이들처럼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 항상 성경말씀을 가르쳐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매주 성경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섬리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누는 시간은 더 없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교육부에 보내주셔서 서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기에 힘쓰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저는 아직도 아이들을 섬기는 이 자리가 어렵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윤애니 집사 |

■ 포토뉴스/ 영커플

한자리에 모인 3개 목장 '행복 가득'

영커플 아가페 목장이 9/19 주일예배가 끝난 후 양태섭 집사님, 양영 권사님 댁에서 전체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목장별로 줌으로 만나다가 3개의 목장이 오랜만에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반갑게 인사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LA 갈비를 맛있게 구워주셔서 풍성한 음식들에 배부르고 마음도 채워지는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미니수영장을 오픈해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더해져 기쁨이 넘치는 모임이었습니다.

준비해주신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서로를 알아가며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지희 성도 |



Nehemiah Sermon Series Inspires...

ICCC EM members creatively turned their inspirations from two concluding installments in the Nehemiah Sermon Series into poetry.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praises and songs were lifted up in the form of haikus and sonnets as members became God-inspired poets just like our forefather of faith David had been.

A traditional Japanese haiku is a three-line poem with seventeen syllables, written in a 5/7/5 syllable count. It emphasizes simplicity, intensity, and directness of expression.

A sonnet is a 14-line poem with a variable rhyme scheme and each line of verse consisting of one short (or unstressed) syllable followed by one long (or stressed) syllable. The name is taken from the Italian sonetto, which means "a little sound or song."

| Monica Kim |



Haikus for Humility

God is my helper
It is through him that I live
Without him I die
- Lauren

I am not in charge
The Lord uses my body
To fulfill His will
- Jane K

I am the bestest
But it's all because of God
God is the bestest
- Eric Lee

Follow behind God
Putting God before ourselves
Revealing others' efforts
- Katie

I am not the one
I did not do anything
He did it all, YEAH
- Julie

You see the process
You have gave me the success
I will praise you nonetheless
- Joyce

To God all glory
Placing focus on our God
In humility
- Jane L

No more I'm so good
Instead say God is so good
Nothing without God
- Nathan

God is my father
One who loves humility
God 사랑해요
- A God-loving Poet

Sonnets for Sabbath

Once upon a time, God made the Sabbath
When He is so capable He rested
Jesus is the Lord of the Sabbath yeah
He was not rebellious but righteous
To reconstruct the true meaning of rest
Breathed into dust and I was created
And we rested with Him in His presence
All of His children rested on Sunday
But many people forget the value
Don't buy, don't sell, it is just the process
Meet Him, learn holiness, taste His glory
Live life in victory during the week
They turned all the don'ts into a purpose
Life more precious than the law we now know
ICCC we love you Jesus Christ - ICCC EM

The church is open, it is the Lord's Day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So God created man on the sixth day
Sabbath was meant for man, not man for it
Cutting 수박 is okay on Shabbat
Clear mind, which I find God during this time
He picked me up and He turned me around
When I was tied by my sins to the ground
Because He healed my heart and changed my name
Sabbath is a day for worship and prai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영원 Free, I'm not the same, I thank God
Da-nu-na-nu, da-nu-na-nu, Sabbath
Da-nu-na-nu, da-nu-na-nu, 박수
- ICCC EM

The Joys of Summer Fellowship

Finger-licking Good

Backyard BBQ with Pastor Kim's delicious galbi, Yaejin's lemon bars, and God's cool wind blowing in the Yang's backyard



C'mere C'mon

Soaking in the summer sun before the coming of autumn at Dockweiler Beach



LEGGO!

Fun-filled bowling at Winnetka Bowl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Photos by Paul Yang



■ 코람데오 소식

사랑의 추억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 드립니다. 미국에 가서 주안예교회를 처음 알게 된 후 한국에 오기까지 벌써 약 2년~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코람데오 청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게 잊그제 같은데, 벌써 한국으로 온 지 한 달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후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고, 공부도 하고, 가족들과 가끔 주변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주일 예배는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고 있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예전에 코람데오 청년들과 산행을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곳에서 처음 보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긴 시간 산행을 가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청년들과 팔로스버디스에 가서 사진 찍고 해산물 먹었던 것, 코람데오 수련회에서 청년들과 밤새 게임하고 놀고 새벽 예배도 드렸던 기억, 코로나 이후 청년들과 줌으로 온라인 나눔했던 것 등이 요즘 자주 생각납니다.

코람데오 청년들과 집사님들께서 저를 만날 때 마다 저에게 친근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나면 늘 먹을 것 챙겨주시고, 사 주시고, 먼 거리인 집까지 태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코람데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모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나열하기 힘들 만큼 주안예교회 교인분들 모두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많아서 늘 감사했습니다.

특히 최혁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는,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던 제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주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가장 먼저 주안예교회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청년들 뿐 아니라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모든 교인분들께 제가 받았던 큰 사랑을 작게나마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 백휘재 성도 |



깜짝 선물과 편지로 전한 우정

빨리 코람데오 청년 백휘재 자매의 마지막 주일예배가 되는 오늘... 그 곁으로 하나 둘씩 모여 깜짝 선물과 편지를 고이 간직한 채 줄 타이밍을 보며 기다려본다. 추가 모임 인원 확인겸 근처 커피숍에서 수다타임을 갖다가 한국에서 기억될 가장 생각날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PHO에 의견이 모여며 메뉴와 장소까지 단번에 정해 다시 LA로 자리를 이동했다. 마지막 모임이라고 행운까지 따르니 신발에 붙은 휴지를 떼어내려다 \$5 현금도 줌고, 기분 좋게 TIP으로 드리고나니 더 좋은 서비스도 받았더라.

식사도중 사진도 찍고, 궁금했지만 미처 묻지못했던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로 웃고 떠들며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 나중을 기약하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으로 빌어주며 마지막 사진도 찍어보았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 좋은 내용의 모임도 추억도 더 많았을텐데 아쉬움이 가득했던 날이었던 것 같다.

모국으로 귀국하는 휘재 자매에게는 또다른 새로운 시작의 stage가 되길 기도하며, 남겨진 우리는 더욱 힘써 주께 의지해야 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 안세진 성도 |



■ AMPM 기도회

1년반 기도의 장작개비 함께 태우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관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귀중함은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몇 사람이 협력하여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있음도 잘 알고 있다.

마치 한 개비의 장작을 태울 때보다 장작 여럿을 함께 태울 때 더해진 장작 개수보다 더 큰 비율의 화력이 상승함과 같이, 주안예교회 AMPM 중보기도 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 생각 된다. AMPM 기도팀들 중 9PM 기도방의 9명이 지난 1년반동안 꾸준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려주신 체험의 간증을 소개함으로써 은혜를 공유하고자 한다. | 나형철 기자 정리 |

왔다. 그 시기쯤 AMPM 기도모임을 줌으로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는 지금의 9pm 기도팀으로 싸인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소천하셨고 중간에 코로나 감염으로 입해 몸이 힘든 상황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기도팀과 함께 참여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의 모습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보기도의 힘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에게 든든한 기도 중보 동역을 함께 할 수 있는 9pm 기도 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정자 권사 AMPM 중보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젠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의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10분전 들어가서 서로 교제와 덕담을 나누는

강이순 권사 AMPM 9시 기도팀으로 엮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9시 기도팀 파이팅!!!

김경배 장로 AMPM 기도 헌신자들과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기도 하는 기도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매일 식사할 때나 성도가 모이면 짧게 감사기도를 하지만 교회나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의 통성기도는 전혀 다른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지한 오류임을 깨닫게 되자 충격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이 깨달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윤자 권사 지난 1년 동안 9pm기도 팀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함으로 힘든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한 가족같이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마음 오래 간직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윤세희 집사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예배와 교회에서의 모든 소구름 모임조차 불가능해지자 내게는 영적 안일함이 찾아



가족보다 더 친근한 기도팀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최승희 집사 저녁 9시면 줌을 통해서 AMPM 기도팀은 늘 웃는 모습으로 서로를 반기며 인사를 나눕니다. 1년 넘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주안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홍영표 집사 지난 1년 중보기도 자리를 지킨 기도의 과수꾼 8명이 주안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한 9pm 기도자들을 오늘도 사랑하며 기억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사랑합니다.

■ 교우소식



임흥식 집사 팔순잔치 임흥식 집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하셔서 가족들과 주안예교회 드림 골프회 회원들을 모시고 9월 25일 축하모임을 가졌다. 남은 여생도 계속 건강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란다.

고용흠 집사, 고하나 권사 가정 첫손녀 2021년도 밸리채플 22 목장 목자로 섬기시는 고용흠 안수집사, 고하나 권사 가정에 지난 9월 23일에 첫 번째 손녀 Ellie 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동안 고용흠 집사님 댁은 손자만 세 명을 주셔서 손녀를 많이 기다리고 가족들이 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신다. 엄마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고 사진으로 보는 애기는 출생한지 24시간도 안됐는데 눈이 또랑또랑하고 쌍꺼풀이 또렷해 여간 귀엽지가 않다.



■ AMPM기도팀

■ 제3기 주안에일꾼 소감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주 안에 교회 AMPM 기도 사역이 시작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예 동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최미정 권사

생활로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여기며 매주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이 넘는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큰 딸과 아들이 한달 간격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럽다 하시면서 어떻게 딸, 아들을 그리 쉽게 시집 장가를 보냈냐고 물으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1년 넘게 중보기도 하는 동안에 제가 구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기도 시간도 자주 빼먹고 기도 또한 맘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흘리진 제 모습,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예배 시간에 최 목사님께서 지금은 더욱 힘써 기도할 때 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 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기도에 집중하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9시 기도팀과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말씀 드려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니 힘이 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니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는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말씀 · 회개 · 훈련... 나를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던 제가 주안에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으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떠돌이 신자로 몇 달을 혼자 방황했습니다. 주안에교회로 처음 인도하신 날부터, 저는 예배 시간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온 여자가 예배 시간마다 혼자 앉아서 평평 우니 아주 기구한 여자라고 보실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오랜 시간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울었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장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니 또 울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주안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말씀 훈련의 자리를 하나씩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안에말씀을 수료해야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좀 치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니, 왜 그런 장치를 마련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근 차근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훈련 받는 자리를 지키면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선택하는 것들, 또 가족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안에일꾼 훈련을 받는 중에는, 제가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학에 가는 큰 딸을 보내면서, 자식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큰 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놓쳐, 공항에서 혼자 밤을 새우고 아침 비행기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

전 같으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억울해 했을 텐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와 조용히 상황에 대처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딸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 조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울기만 했는데, 곧 안정을 찾았고, 아이를 그 곳에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또 간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

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혼자 겪어야 하는 상황이 마음이 아파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다시 한 번 저의 마음을 잡아 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우리는 이미 아이들을 하나님께 돌려 드렸지 않냐고 말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딸 아이는 잘 회복하고 기숙사로 돌아와 강의도 듣고 친구들과도 잘 지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혜연 집사

처음 주안에교회에 왔을 때,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고 불편해서 피하고 도망 다니던 제가, 주안에살 훈련을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이번 주안에일꾼 훈련을 하면서는 목장의 작은 목자로 섬기게 되었고, 불편했던 목장 모임이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제 마음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지키는 은혜를 누립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제3기 주안에일꾼 독후감/ '그 청년 바보의사'

내가 그어놓은 선, 오만한 내 모습을 고발

처음 책을 펼치기 전에 짧은 글이 마음에 다가 왔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직장인으로 있다보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계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환자고, 의사는 의사고, 간호사는 간호사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일상의 직장에 그리스도를 모셔가지가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안수현은 그의 삶의 공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 늘 인식하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글이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젊은 의사가 일찍 생을 마감했으나, 그가 그의 의술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론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실천하기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선한 영향력과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했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주권의 영역은 내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은 몇번째 순위인가?”

가슴을 찢고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이 영역은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할게요.’ 이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저자는 또 한 번 제 마음을 짓밟습니

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 시키고 있는가?” 아니요. “내가 손해 보고 위해 예수님을 믿었던가요? 복 주신 다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기에 모셔 들었는데, 왜 손해를 보아야 하지요?”가 순간 내 마음에 드는 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No pains, no gains.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다 잡으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레지던트 시절이면, 얼마나 바쁘지, 얼마나 정신 없을지 알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영적인 우선 수위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많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바쁘지. 그렇지만, 내가 그만큼은 바쁜 것은 아니지.” 그렇다면, 광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겨우 받쳐주는 지지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요 능력이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임을 그분 또한 아시기에 귀한 시간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아멘!

청년 안수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또 있습니다. “코람데오(coram deo)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그분 앞에서 친밀함과 경외함 두 기동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옆을 돌아보면 물에 빠진다.”



양태섭 집사

아들이 태어 났을 때, 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 주어진 첫번째 단어가 “경외”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계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경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기 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 오고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부끄럽게 느꼈고, 또 가슴이 벅차 오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향한 시선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그 분께 향할 때 얼마나 행복하게 웃으실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 나의 큐티 노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 자아를 향해 마치 제3자가 권면하며 타이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즉 믿음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택을 잊어버리고, 찬양이 멈

췌 때 또다시 찾아온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요동하고 두려워하며 낙담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시인처럼 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에게 타일러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와 은택을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 조용대 기자 |

■ 음악 칼럼/ 클라라 슈만

현실에 굴하지 않는 여성 음악가의 표상

수없이 많은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음악가는 누가 있을까. 음악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고 가발 쓴 모습의 초상화 덕분에 여성으로 오해 받고 있는 헨델은 명백한 남성 음악가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남성 음악가들 사이에서 반짝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여성 음악가를 소개한다.

클라라 슈만 (Clara Josephine Wieck Schumann, 1819~1896) 은 독일의 라이프치히 출생이다. 음악교사인 아버지와 성악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5살부터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고, 9살에 첫 피아노 콘서트로 데뷔한 후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다. 10대의 나이에 이미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입지를 굳히며 승승장구했고, 18살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실연주가'로 지명되었는데 전례가 없는 과격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대단한 인기로 그녀의 이름을 딴 케이크가 판매되기도 했다.

클라라의 연주를 듣고 감명받은 로베르트 슈만은 유명한 음악교사였던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의 집에 찾아가 하숙하며 배우게 된다. 같이 음악을 배우던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하지만, 아버지 비크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기나긴 법정투쟁 후에야 비로소 공식 부부로 인정받는다.



이미 탁월한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는 슈만의 창작력을 흠모했으며, 야심찬 작곡가이자 평론가였던 슈만은 클라라의 연주력에 경의를 표했다. 결혼 후 로베르트 슈만의 창작력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의 대표작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탄생한다. 이미 피아니스트로 명성이 자자했던 클라라는, 무명의 작곡가에 불과했던 슈만의 작품들을 각지에서 연주하며 그의 음악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음악적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클라라는 집에 한 대 밖에 없는 피아노를 남편에게 양보해야 하기도 하고, 7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현실

에 낙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꾸준한 연주 경력을 이어 간 결과, 자료로 기록된 연주 횟수만 1,300회에 이른다. 60년이 넘는 그녀의 연주 경력 동안 비평가와 청중들은 한결같이 찬사를 보냈다. 죽는 날까지 연주 레파토리 확장을 위해 노력했고, 남편과 자식의 죽음을 겪으면서도 음악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아니스트로서만이 아니라 작곡가, 음악서적 편집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반경을 넓히며 자신만의 발자취를 남겼다. 19세기 유럽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폐쇄적이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술가로서 목소리를 냈던 여성이었다. 유로화로 유럽의 화폐가 통합되기 전 독일의 100 마르크 지폐에 클라라의 초상이 들어있을 만큼 그녀는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었다.

클라라의 역사와 작품들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을 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뛰어난 재능에 탄복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며 스스로 작곡을 중단한 탓에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낸다. 현대의 음악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발굴하고 연주하며 오랜 시간 잠들어있던 그녀의 목소리를 깨우고 있다.

| 황성남 집사(성가대 지휘자) |



■ 주안예교회 OC채플 장소 및 예배시간 안내

10월 3일 주일부터 BP채플이 OC채플로 이전합니다.
(주소: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주일에배시간이 10월 3일 주일부터 변경됩니다.
밸리채플: 1부 8:00AM, 2부 10:30AM, 3부 1:30PM
OC채플: 1:00PM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더,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영,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